때가 가까우니라. 마라나타!

(계22:6~21)

10.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오늘 이 본문으로 일단 마감이 되게 됩니다. 무려 8년 세월이 걸렸네요.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때가 가까우니라, 마라나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마라나 타'라고 띄어서 읽는 것이 맞는데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기보다 '마라나타'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가 가깝다'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비슷한 표현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때가 가깝다. 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 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가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요구가 그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은 '마라나타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이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소망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때가 가깝다.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때가 가깝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앞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지금 내 위의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늘은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늘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역사와 그 십자가에 약속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이 말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하셨고, 1세기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제국 전역에 퍼져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모두가 갖고 있었던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착각이었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착각일수가 있겠습니까?
때가 가깝다는 말이 뜻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우리는 자꾸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미래를 앞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때가 가깝다는 임박한 종말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가 앞에서부터 온다는 의식을 갖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666 짐승입니다.

아니, 미래가 어떻게 앞에서 옵니까?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늘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승천해 계시는 주

님으로부터 우리의 미래가 오는 것이지 어떻게 막연하게 앞에서부터 옵니까? 앞에 누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미래를 나한테로 보내고 있는 겁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의 논리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면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위에 계신 그 분은 지금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에 의해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자꾸 차단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붉은 용인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표를 갖고 있는 땅의 짐승이 각각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눈앞에 보이는 가지가지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금 하늘 위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셔서 이제 재림하실 그 예수님께 지금 마음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미래를 앞이라고 바라보면서 앞에 있을 좋을 환경과 앞에 있을 좋을 때를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일반 종교적 우상시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면 결국 666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서 미래라는 것이 앞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미래는 앞에서 오고 장차 온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의식은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승천하신 주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로 만나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깝다는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지금 위에 계신 그곳으로부터 내 미래가 오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 때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는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없어져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현재의 옛 땅과 옛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변한다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이라는 몸을 입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변해서 영이 되는 겁니까?
육체라는 몸 대신에 영이라는 몸을 입는다는 것이지, 육체가 변해서 영이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요.
이 육체가 변형되어서 영이 그걸 다시 입고 산다는 자체가 생각만 해도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으로서의 몸을 우리 인격에 입혀주실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여간 이렇게 세상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의 계시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종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그렇게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열두 사도도 그렇고 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적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죽으면 시간과 공간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시간과 공간 바깥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요. 심판의 내용이 다르지만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서게 됩니다. -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시간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죽어 있잖아요. 시간 바깥에 나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죽은 뒤로 1950년가량이 지금 지났어요. 그러나 1950년이라는 시간 개념이 죽어서 시간 밖에서 잠들어 있는 사도바울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초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는데 어느 때 부활합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 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3,000년이라는 시간은 다 제거되고, 사도바울 선생님은 죽을 때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붙은 상태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3,500년 전에 죽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죽으면 시간 밖으로 나가서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을 때에 그 순간으로부터 시간이 1초도 안 흐른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느낌은 오지 않아요?
시간 밖이니까 시간이 안 흐르는 것이죠. 시간 밖이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와 예수님이 재

림하실 때에 부활하고 나면 죽을 때의 그 상태가 딱 붙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임박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딱 붙어버리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말씀을 듣고 살다가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불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미신을 따라가지 맙시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왜 불길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 이런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되셔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면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없는데 죽는 것이 막연하게 불길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죽는 게 하늘나라로 태어나는 내 생일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자궁으로부터 하늘나라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세상으로 태어나는 생일이죠. 죽는 게 좋은 거죠. 이 세상을 졸업하는 거니까.
졸업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졸업 못할까봐 걱정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 못할까봐 걱정해야죠. 왜 죽을 것을 걱정합니까?
세상을 졸업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데.
그 졸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늘나라가 좋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믿지 마음으로는 안 믿고, 마음으로는 아직 하늘나라보다 세상 것이 더 좋다고 믿으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고, 세상을 졸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세상이라는 자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세계로 나아가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임박했다는 이 말은 틀리지 않아요.
나는 학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슈바이처 같은 분들, 임박한 종말론자들, 철저 종말론자들의 말은 좀 착각에 의한 것 아니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임박했지, 그럼 임박하지 않았어요?
아니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하늘에 재림하실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더 임박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그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딱 붙어버리는데.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을 괜히 하시는 말씀입니까?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말씀드렸듯이 실천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때가 가깝다는 말과 붙어있는 이야기이고 의미가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때가 가까울 때에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재림과 연관 지어서는 이렇게 안 살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1년 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통 4시간 전쯤에 출발해요.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을 해야 되고, 또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혹시나 교통체증 때문에 막히거나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한 2시간 쯤 잡아요. 그러면 4시간 전 쯤에 짐 싸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동창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공식적인 동창회는 아니지만 모임이 있는데 '다들 네가 꼭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 너무 간절하게 꼭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미안한데, 내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모임에 못 나가겠어. 갔다 오면 혹시 그런 모임이 다시 생길 때 내가 꼭 참석 할 게' 하고 뒤로 미룹니다.
친정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아버지 생신 잊어버렸냐? 빨리 와' '엄마, 나 지금 미국 가야 돼.' 그러면 못 오는 걸 이해를 해요. 모든 일이 다 미뤄집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다 미뤄지는 거예요. 비행기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 우리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시니까 지금 그분을 봐야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시간이 재림의 시간과 딱 붙어버리니까 앞으로 천년 뒤에 일어나건, 만년 뒤에 일어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년이 지나도 나에게는 시간이 1초도 안 지나는 겁니다. 시간 밖으로 나가서 잠들어 있는 것이 죽음이니까.
지금 사업 문제가 급합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미국 가는 비행기가 4시간 뒤에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은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라는 하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급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사업하러 나가다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사업 때문에 쇼크 받아서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치매 걸리기 전까지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생각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치매가 혹시 걸리더라도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치매 걸린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잘 믿는 분이었어요. 치매 걸리면 제 정신이 없고 의식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치매 걸린 그 분은 치매 걸리기 전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왜 치매가 걸려있냐?
치매에 걸림으로써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 있기 때문

에.
어떤 한 사람이 뇌졸중으로 누워있다면 그 분의 생애가 그 분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뇌졸중으로 누워있는 동안에 뇌졸중 환자가 주는 압박감, 부담감,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3년을 누워계셨는데, 그 동안에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누워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급한 일은 뭐냐?
오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죽든지 뇌졸중으로 죽든지 그 죽는 사람들 중에 오늘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인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급한 일이 뭡니까?
자녀에게 일이 생기고, 내 몸에 병이 나고 별의별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내 눈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급한 일에 대해서 죽고― 하늘을 향하여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 내 마음이 하늘로 보내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앞으로 있는 먼 미래에 있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시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감각이 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만남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가 가깝다는 말씀 속에 포함된 세 가지 의미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거예요. 이걸 실천적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많은 교리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세 가지 의미를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선적인 것은 마음을 하늘에 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붉은 용과 두 짐승이 이를 악물고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악랄하고 철저하고 끈질기게 붙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늘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운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연합하려고 할 때에 공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앞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것이고, 666짐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은 앞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미래가 앞에서 오는 줄 알고 자꾸 앞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꾸 앞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앞에 있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잖아요. 이게 다 거짓선지자이고 666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예언한다고 나와서 몇 년 몇 월 몇 일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예언 봤어요. 요새 유행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목사고 전도사라 불리는 여자 분들이, 12월 달에 이북과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전쟁이 안 일어난대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도,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말도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식으로 예언해 볼까요?
11월 말에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내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일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몇 년 몇 월 몇 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 마음을 끌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땅굴이 있는데 땅굴을 막으면 20%가 덜 죽을 거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땅굴을 막지 않으면 우리들이라도 일어나서 땅굴을 막으랍니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더라도 어느 달 몇 날 몇 일이라고 예언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성을 더 쌓아서 전쟁을 대비하라든지, 칼을 갈아서 대비하라는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지금 하늘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이 혹해서 그걸 듣고 마음이 흔들린 자들이 있어요.
내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고, 모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고,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때가 가까운 사람들은 공항에 가야 될 사람처럼 내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이고, 하늘로 보낸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하시면 피하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대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못된 거짓 선지자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앞을 보게 만들어서, 앞의 기간이 당도할 때까지라도 마음을 땅에 붙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대비해서 뭘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죠.
일어난다는 말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다 잘못된 거예요.
왜 마음을 거기에 두고 앞에 둡니까?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불의한 사람이 의롭게 전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거룩하게 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의 여유가. 시간적 틈새가.
그럼 우리는 회개하라고 말씀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변화의 가능성이 제거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이 다 제공되었어요.
전체가 다 제공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의 요약이 뭡니까?
어린양 십자가에 연합해서 마음을 하늘로 보내고, 이 땅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적어 놓으신 그 책의 내용들을 따라 행동하는 천년왕국을 살다가 생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거면 다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바뀐다면 이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바뀌게 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공된 다음에는.
그런데 밖의 사람들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붉은 용과 두 짐승의 처절하고 악랄하고 교활한 의도를 맞춰가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자꾸 이 땅에 붙이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앞날을 보게 만듭니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 따위 소리를 지껄여 대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에 대해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말씀이 다 제공되었는데도 여전히 마귀들에게 유혹되어서 자기만 미혹 될 뿐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미혹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늘로 보내지는 일을 위해서,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의 기성교단이 과연 교회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그 조직으로서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참 교회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출애굽을 한 것처럼 출애굽을 해야 돼요.
이 상태로는 안 될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삶이 지금 이 상태로 실천될 수 있는 풍토가 어떻게 조성이 되겠습니까? 문제죠.

자, 그러면 오늘의 번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8년이 걸렸잖아요. 오늘의 번제는 시즌 2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즌 2로 전환하기 위한 방송관계로 홈페이지 안에서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작업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즌 2 오늘의 번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즌 2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시즌 3도 허락하시고, 시즌 4도 허락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가 가능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8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날마다 어린양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 2를 시작하려는 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를 바라고 또 믿으며, 함께 시즌 1을 해주신 것처럼 시즌 2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참다운 역사가 끊임없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계속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